

다시 생각하는 랑가나단의 명언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다”

국회도서관장 허용범

yb22032@nnet.go.kr



저작자표시(BY)



경북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경북도청에서 특강 중인 허용범 국회도서관장(2019. 7. 9.)

나는 도서관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인도의 랑가나단(Ranganathan)이라는 학자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의 소위 ‘도서관학 5법칙’이라는 것도 들은 바가 있었다. 그는 1930년대 아직 도서관학이 학문으로 정립되지 않던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만들었고, 그의 이론은 근대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탄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도서관학 분야에서는 그를 ‘도서관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

내가 ‘도서관의 혁명적 변화’라는 주제를 입에 달고 살아서 그런지 최근 여러 곳에서 도서관과 관련한 특강 요청을 받은 한다. 그때마다 역설하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랑가나단 박사가 말한 ‘도서관학 5법칙’ 중 제5법칙, 곧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다.”(Library is a growing organism)라는 대목이다. 나는 다른 4개의 법칙¹⁾도 1930년대적 기준으로 볼 때 도서관에 대한 탁월한 혜안을 갖게 하는 명제라고 여기지만, 이 다섯 번째야말로 지금 21세기에도 살아있는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 철학이 아닌가 여긴다.

랑가나단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현재적 의미에서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말을 ‘변화와 혁신’으로 읽게 된다. 특히 유기체라는 말이 의미심장한데, 죽어있는 물체인 무기체와 달리 유기체는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해 나가며 성장해 가는 생명체라는 의미에서 도서관 또한 그러한 유기체적 변화가 본질적 속성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

다. 결국 도서관은 주어진 틀 안에서 정체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라, 외부와 부단히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생명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경북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경북도청에서 한 특강에서, “도서관도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취지로 랑가나단의 이 제5법칙을 강조한 바가 있다.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아도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으로서 도서관이라는 조직 자체는 유지될지 몰라도, 시대적 요구에 맞춰 선도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는 기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즉, 아무리 시설이 새롭고 각종 장서가 구비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또 하나의 그저 그런 ‘과거식 도서관’을 하나 더 짓는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도서관의 혁명적 변화는 소위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대전환에 따라 함께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차피 맞을 변화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나는 줄곧 역설해 왔다. 나아가 이런 대변환기에는, 눈길을 앞장서 헤쳐 나가며 길을 내는 러셀처럼, 누군가는 도서관계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야 하므로 국가도서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이 그 책무와 사명을 자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금 도서관 서비스의 혁명적 변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4차산업혁명의 주동력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의 혁명적 변화도,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방식의 개발,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자료와 서비스기술의 개방과 공유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 곳곳에서 ‘책 없는 도서관’ 설립이 실제 일어나고, “이 곳이 과연 도서관인가”라고 의문이 들 만큼 쇼핑센터나 문화시설화된 곳이 적지 않은 것도, 전통적인 책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가 디지털 데이터 중심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관이란 지식정보를 수집·보존하고 검색하는 곳’이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크게 확장되어 ‘책도 보지만 다양한 이용자가 쉬고 즐기고 체험하고 논의하는 곳’이라는 쪽으로 도서관의 기능 자체를 달리 해석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인류가 5천여 년 동안 사랑해 오던 ‘도서관’의 존재이유가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랑가나단이 강조한 명제대로, 도서관이 ‘성장하는 유기체’가 되려면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 발달에 맞춰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인 지식정보의 수집과 보존, 전달, 이용 등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부단히 진화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거듭 이르게 된다.

나는 이 제5법칙의 원래 의도가 궁금해 직접 랑가나단의 저서를 우리 도서관에서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책 『도서관학 5법칙』²⁾ 제7장에서 ‘제5법칙’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었다.

“성장을 멈춘 유기체는 생기를 잃고 소멸한다. 제5법칙은 시설로서의 도서관이 성장하는 유기체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성장하는 유기체는 새로운 물질은 취하고 현 물질은 버리며... (중략) 새로운 형의 진화로 이어지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중략) 이 모든 형태의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살아남은 것은 생명이라는 활력이었다. 그것도 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도서관학이란 학문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1930년대에 이 학자는 도서관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생명체의 생존조건인 ‘진화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다윈

의 진화론의 핵심인 자연선택 이론은 자연환경에 맞게 변화하지 않는 생물은 도태된다는 것인데, 말이 어려운 한자인 도태(淘汰)이지 사실은 죽음이나 멸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는 요즘 특강에서 강조하곤 한다. 도서관이 이처럼 하나의 생명체처럼 외부환경의 변화에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그것은 도서관 구성원의 부단한 노력과 자유로운 혁신의 도전정신, 그리고 상호협력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도서관을 생각할 때 아직은 책과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떼어낼 수는 없다. 국회도서관은 그동안 4차산업혁명시대 도서관 서비스의 많은 변화를 선도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개방과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책과 종이로 이뤄지던 인류사 수천 년간의 정보수집 및 보존, 이용이 가속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로 이뤄지는 시대임에도,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책이 주는 위안은 여전히 인간에게 크나큰 안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의 본질은 내용과 형식에서 가히 혁명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유티커터스적 서비스라는 대세는 불가역적 흐름이 될 것이다.

나는 랑가나단의 책을 읽다가 제76절 ‘진화’라는 부분에서 그가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예언해 놓은 대목에서 기절할 뻔 했다.

“이 ‘성장하는 유기체’ 즉 도서관에게 금후 어떤 진화단계가 준비되어 있는지 완전히 내다볼 수는 없다.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인 지식의 보급이 인쇄된 책 이외의 수단으로 실현되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그 전자신호가 과거 인쇄된 책을 전면적으로 대체해 가는 시대, 그럼으로써 도서관에 혁명적 진화가 일어나는 단계. 랑가나단이 80여 년 전에 한 예언, 즉 ‘인쇄된 책 이외의 수단’이 도서관 서비스의 대세가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1) 다른 4개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책은 이용하기 위해 있다. (Books are for use.)
2. 모든 이용자에게 그의 책을. (Every reader his book.)
3. 모든 책은 그의 이용자에게. (Every book its reader.)
4.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Save the time of the reader.)

2) S.R. 랑가나단 저, 최석두 역, 한국도서관협회, 2005